

2023년 1월 15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For while we were living in the flesh, our sinful passions, aroused by the law, were at work
in our members to bear fruit for death. But now we are released from the law, having died
to that which held us captive, so that we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and not in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

로마서 Romans 7:5-6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와 달리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과 말씀로써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주여,
저희와 늘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라 천국 가는 길에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 율법인가 은혜인가?

Salvation: By Law or By Grace?

사도행전 Acts 15:1-5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But some men came down from Judea and were teaching the brothers, “Unless you are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custom of Moses, you cannot be saved.”

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And after Paul and Barnabas had no small dissension and debate with them, Paul and
Barnabas and some of the others were appointed to go up to Jerusalem to the apostles and
the elders about this question.

3. 그들이 교회의 전승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So, being sent on their way by the church, they passed through both Phoenicia and Samaria,
describing in detail the conversion of the Gentiles, and brought great joy to all the brothers.

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When they came to Jerusalem, they were welcomed by the church and the apostles and the
elders, and they declared all that God had done with them.

5.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But some of believers who belonged to the party of the Pharisees rose up and said, “It is
necessary to circumcise them and to order them to keep the law of Moses.”

오늘은 율법(the Law)과 구원(Salvation)에 대하여 증거 하겠습니다.

율법(the Law)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Sinai Mountain)에서 십계명(Ten Commandments)을 포함한 율법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1.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이어지는 질문 하나 추가(addition)합니다. 2.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추가질문(additional question)부터 대답해 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 세상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구약성경(Old Testament)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노아(Noah), 아브라함(Abraham), 이삭(Isaac), 야곱(Jacob), 요셉(Joseph), 다윗(David), 솔로몬(Solomon), 예레미야(Jeremiah), 욥(Job)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약(New Testament)에도 베드로(Peter), 누가(Luke), 바울(Paul), 바나바(Barnaba)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원 받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죄를 씻음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 (the Cross)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지역에 사는 자들인데 시리아 안디옥(Antioch in Syria)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Unless you are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custom of Moses, you cannot be saved.
사도행전 Acts 15:1b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더욱이 이 가르침은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근거로 이들이 예루살렘교회와 관계가 있다고 그 정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예루살렘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루살렘교회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안디옥교회 안에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2. 또한 이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루살렘교회의 일부가 주장하는 것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예루살렘교회에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일부가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3.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Since we have heard that some persons have gone out from us and troubled you with words, unsettling your minds, although we have them no instructions

사도행전 Acts 15:24

그러니까, 안디옥교회에 와서 “구원문제” 를 제기하는 이들은 예루살렘교회 출신이지만, 자의적으로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순절 성령세례를 받고 온 세상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된 예루살렘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교회는 안디옥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교회에 대한 어떤 “권위” (authority)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읽으면, 예루살렘교회의 결정은 세상 모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내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루살렘교회 출신인 이들이 안디옥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안디옥교회는 쉽게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하여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 그 의견에 반대한다면, 우선 그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과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도자들과 담판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천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한 지도자들 몇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5:4-29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열었던 내용입니다. 그 해당 본문을 대개 “예루살렘 회의” (Jerusalem Council)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몇 명의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동기와, 예루살렘 회의의 첫 부분을 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묵상합니다.

1-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온 이후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안디옥교회를 모이게 하고, 강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럴만한 권위(authority)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교회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1-2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But some men came down from Judea and were teaching the brothers, “Unless you are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custom of Moses, you cannot be saved.”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안디옥교회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니다. 일방적으로 강의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No salvation if not circumcised by the law of Moses.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동의한 내용도 아닙니다. 베드로(Peter)나 야고보(James) 같은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에서 나온 이들은 소위 월권행위(excess of authority)를 실시했습니다. 바르지도 않은 신학을 가지고. 그 바르지 않은 신학이란, 구원론(Soteriology)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1.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And after Paul and Barnabas had no small dissension and debate with them.

우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교사들과 의견이 같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가 이들 가르침 때문에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안디옥교회 안에서도 이들 예루살렘 교사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And many false prophets will arise and lead many astray. And because lawlessness will be increased, the love of many will grow cold

마태복음 Matthew 24:11-12

논쟁이 격화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논하면서 인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아이러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2-2.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Paul and Barnabas and some of the others were appointed to go up to Jerusalem to the apostles and the elders about this question.

안디옥교회 형제들이 이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안디옥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논쟁의 불씨를 지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 이 문제를 바로잡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비단 안디옥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는 교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From pure spring pure water flows) 하는 격 아닙니까?

안디옥교회는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임의로 내려온 사람들을 교정하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예루살렘교회의 공식적인 신학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교정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3. 그들이 교회의 전승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So, being sent on their way by the church, they passed through both Phoenicia and Samaria, describing in detail the conversion of the Gentiles, and brought great joy to all the brothers.

안디옥교회의 대표자들이 안디옥교회의 전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몇 군데 교회들을 들러, 선교보고를 했습니다. 베니게(Phoenicia)와 사마리아(Samaria)가 그중에 들었습니다. 베니게는 시돈과 두로가 포함된, 시리아와 이스라엘 중간지대 해변 지역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간증했습니다. 듣는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한 안디옥교회 대표들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복음전파”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려는 것도 아니요, 안디옥교회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4-1.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When they came to Jerusalem, they were welcomed by the church and the apostles and the elders

마침내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4-2.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 모든 일을 말하며

And they declared all that God had done with them.

바울과 바나바 및 형제들이 예루살렘교회에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5-1.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But some of believers who belonged to the party of the Pharisees rose up and said: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 중에 바울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5-2.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It is necessary to circumcise them and to order them to keep the law of Moses.”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It is necessary to circumcise them.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It is necessary to order them to keep the law of Moses.

할례가 특별히 지적되었지만,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안디옥교회에 왔었던 자들의 주장 그대로, 그것은 “구원 받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포함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특별한 기능에 대하여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의 핵심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혈통을 따른 유대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요한복음 John 1:12-23

육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1. 교회가 모여, 2. 선교보고를 듣고, 3. 오랫동안 함께하는 기쁨에 충만한 안디옥교회가 예루살렘교회에 온 몇 사람들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른 성경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자가 시각장애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법입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And if the blind lead the blind, both will fall into a pit.

마태복음 Matthew 15:14c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뜻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으로써 “울타리”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구원 받은 자들이 지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는 장치였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한 모세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foreshadowing)입니다.

율법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grace by the Cross)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십자가의 은혜(grace of the Cross)를 사모해야 합니다. 율법은 십자가의 사랑 (the love in the Cross)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없이 율법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대신에 그들을 깨우쳐 바르게 알게 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한 것은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생활 하는 중에, 언제나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르게 파악한 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써 임하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성경말씀 자체의 증언입니다. 율법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가 오기 전까지 기능합니다. 은혜 이후에 우리는 율법이 은혜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기능이 있음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버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성취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성”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I have not come to abolish but to fulfill them.
마태복음 Matthew 5:17

할례의 경우, 그 정신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And all the house of Israel are uncircumcised in heart.
예레미야 Jeremiah 9:26c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할례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자자손손 하나님께 순종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표시(sign of the covenant)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피부에 새겨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냥 “장식” 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요새 타투(tattoos)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And circumcision is a matter of the heart, by the Spirit, not by letter.
로마서 Romans 2:29b

피부가 아니라 마음에 해야 진정한 할례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 아닙니까? 마음에 두어 삶이 그 언약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the letter to the Galatians)에서 바울은 “할례” 와 “십자가” 를 대비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For even those who are circumcised do not themselves keep the law, but they desire to have you circumcised that they may boast in your flesh. But far be it from me to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y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갈라디아서 Galatians 6:13-14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the marks of Jesus Christ)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From now on let no one cause me trouble,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s, brothers, Amen.

갈라디아서 Galatians 6:17

할례로써 “당” (divisions)을 짓고 싸움을 일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 바울을 괴롭히던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십자가가 표시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표시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로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음을 항상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And he said to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누가복음 Luke 9:23

십자가를 몸에 새기거나 목에 거는 것보다는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2023년에 금문성도 여러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써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